



광남일보



 “교육, 민주주의 지속성 유지 핵심 요소”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도교육청 토크콘서트 특강	 광주상의, 지역 가전산업 활로 모색 ‘온 힘’ 8개 기업 3개 컨소시엄 협약…신제품 개발 등 추진	 나주 영산강서 ‘정원페스티벌’ 열린다 시, 전남도 공모사업 선정…10월 8~29일	 장흥에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주)솔리스장흥과 협약…400MW 태양광·스마트팜 추진
조간 제7863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음력 5월 21일)	

착한 소비는 나눔되고, 착한 배달은 상생된다



국내 양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대형 민간배달앱의 지나친 수수료와 독과점 폐해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공공배달앱이다. 광주는 ‘위메프오’와 ‘땡겨요’를, 전남도는 ‘먹개비’와 ‘땡겨요’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공공앱 출시 첫해인 2021년 1240곳에서 현재 1만4499곳으로 11배나 급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공공앱은 여전히 민간앱에 비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공배달앱의 가맹업체 지속적인 확대, 정부와 지자체의 활성화 방안 및 제도 개선 등을 살펴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2%로 낮추고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 외식업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공배달앱으로 ‘위메프오’와 ‘땡겨요’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2021년 7월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해 3월부터 신한은행이 출시한 ‘땡겨요’를 신규로 추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이 지난해 8월 23일 광주 송정역에서 한국소비자연협회 광주시지회, 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함께 ‘배달의 민족 독립(탈퇴) 서명운동’ 현장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광주 ‘위메프오’·전남 ‘먹개비’ 운영…가맹 증가세 1.5~2%대 저렴한 수수료…가입비·광고비도 없어 자본력 앞세운 민간플랫폼에 고전…정부 지원 필요

‘위메프오’는 6.8~12.5% 수준인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를 2%까지 낮추고, 지역 화폐 광주상생카드를 온라인 결제로 연계하고 있다. 따라서 앱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수수료 절감분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광주만의 특색 있는 배달앱 운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 중개수수료 2%, 가입비 당일정산 서비스, 한눈에 장부관리 서비스, 매장식사 가능 도입, 사장님 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첫 주문·재주문 할인, 카테고리별·상생카드 사용 이벤트, 불맛이 5000원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으로 광주 공공배달앱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만4499곳으로, 시행 초기보다 11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누적 주문 건수는 169만 건, 누적 매출액은 418억7000만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지역 시장 점유율은 17%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역시 공공배달앱으로 ‘먹개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도입한 ‘먹개비’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5%의 낮은 중개수수료

로 제공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가입비, 광고비 없이 가맹이 가능하며, 신규 가맹점은 20만원 상당의 지원금도 받는다. ‘먹개비’는 지난 3월 기준 가맹점 1만2790개소, 회원 13만2212명, 매출액 360억원을 돌파하며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2월 도입한 ‘땡겨요’도 1년 3개월 만(지난 3월 기준)에 누적 가맹점 4018개소, 회원수 7만1724명, 매출액 50억원을 달성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자본력을 앞세운 민간 플랫폼을 상대하기에는 버겁다. 여전히 민간배달앱에 밀려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로 ‘낮은 인지도’와 ‘가격 경쟁력 부족’ 등을 꼽고 있다. 특히 민간앱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무료 배달, 대규모 할인 쿠폰 발행 등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지만, 공공앱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격 경쟁을 따라잡지 못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공공앱 지원이 밀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 설계가 시급하다”며 “지속적인 예산 투입 없이도 자립이 가능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 플랫폼 협동조합 결성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정상외교 첫발 G7 참석차 오늘 캐나다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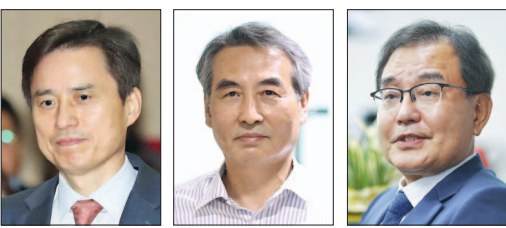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다. 취임한 지 불과 12일 만의 ‘초고속 데뷔전’이다. 대통령실은 15일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8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G7 회원국이 아닌,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전보장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하면서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으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다자에서 이뤄지는 양자 협의라는 것이 가변성이 많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내란’ 조은석·‘김건희’ 민중기·‘채상병’ 이명현

李 대통령, 3대 특검 지명…수사 속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끌게 된 특별검사들이 임명 사흘째를 맞은 15일 특별검사와 파견 검사 인선뿐 아니라 사무공간 물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장성 출신의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조·한·심 특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

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각 특검별로 특검 임명 이후 준비기간은 최장 20일로, 다음 달 중순께는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천했다. 채상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조·한·심 특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을 지냈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전현

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재심을 주장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